

# Message from the CEO

“지난 1년간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했던  
Keyword 중 하나는 ‘당근 Staff과 강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즐겁게 일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 “누가 애벌레를 먹어 치울 수 있을까?” - 희생적 소수

한 해의 마감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성공적인 2006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모두들 분주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 과정일 것입니다. 캐럿 C.E.O로서 지난 1년간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했던 Keyword 중 하나는 “당근 Staff과 강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즐겁게 일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배가시켜야 하며, 밖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고객 만족)를 끊임없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충성심과 희생정신이 밑받침 되어야 회사는 어려운 난관을 뚫고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C.E.O 조찬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윤석철 교수의 강연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 전하고자 합니다. 70년대 라면의 Quality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었습니다. 한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라면에서 애벌레 나 오다”라는 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스프를 만드는 살균기술이 아주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라면 속에서 애벌레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OO라면회사 직원이 현장에 달려갔을 때 이미 많은 사진기자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직원은 제보자에게 벌레를 보여 달라고 하고서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깐 응시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벌레요? 라면 부스레가지...!” 하고 입안에 털어 넣어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현장 기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동시에 그 직원의 충직과 애사심에 모두 감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이며 시장개방 이후에도 일본라면과 중국라면이 한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한 말단직원의 애사심과 충직이 그 회사를 위기로부터 구해냈던 것입니다.

이미 당근에는 희생과 열정으로 무장된 충실한 Staff들과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회사의 역량이 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서 회사를 구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 다시 한 번 2006년 우리가 이루어낸 눈부신 성과들을 조용히 되짚어 보고, 2007년을 알차게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written by 당근영어 대표이사 노상충(James Roh)

